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52.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2013. 12. 29.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0장 내용을 거의 다 살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구절 11절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올바르게 깨닫는 기쁨을 얻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0:9~11]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갓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갓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밀러의 해석에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실만 이야기하고 다시 예언하는데 대한 말씀은 이 시간에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지요.

답: 예, 그런데 계시록 10장은 다니엘서 12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지요. 봉하라고 한 다니엘서가 계시록에서 펴 놓인 책으로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른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이 장면도 다니엘 12장 7절과 흡사합니다. 한 번 읽어봅시다.

[단12:7]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구름을 입은 대신에 세마포를 입고 땅과 바다를 밟은 대신에 강물 위에 있습니다. 또 좌우 손을 다 들고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영생하시는 자라는 말과 세세토록 살아 계신 자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한 때 두 때 반 때에 대하여 말합니다. 즉 때에 대하여 말하는데 계시록 10장은 남은 때가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때와 관련된 것이 같습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지시합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이제 또 예언적으로 남은 때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에 의하여 계시록 10장이 다니엘 12장에 대한 후속 예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적으로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때에 대한 예언이 없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서가 펴 놓이는 역사적 시기가 지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계시록을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연구해야 하는 책이 다니엘과 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이 장면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2. 예,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예언해야 하는 것도 다니엘서의 예언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답: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기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하신 것은 이미 말씀 나눈 대로 밀러를 통하여 해석한 것이 연대 계산은 맞았지만, 사건에 대한 해석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언해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언하기 위하여서는 예언할 사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요. 성경은 예언을 할 때에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예언적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 민족 중에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예언을 맡겼습니다. 것처럼 교회에도 이때에 이르러 잘못 해석한 것을 바로잡고 아직 덜 깨달은 것을 깨닫게 해서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데 그렇기 위하여 한 예언자를 세우실 것을 계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합니다.

3. 아, 그러니까 밀러도 성경연구를 통하여 다니엘서의 예언을 해석하여 그것을 예언한 셈이지 않습니까?(그렇지요.) 그런데 그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잡고 또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도록 해서 다시 예언하도록 한 예언할 사람을 세우셔서 밀러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군요. 그렇습니까?

답: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0장에 예언된 장면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시점에 예언할 사람을 불러 세우시겠다는 뜻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할 내용이 무엇인지 11장 1,2절에 지시했습니다.

4. 아, 예언할 내용도 계시해 주셨군요.

답: 그렇습니다. 한 번 읽어보지요.

[계11:1,2]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되 2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원래 성경은 장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지요. 훗날에 장절을 나누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장을 나눈 사람은 스테픈 랭톤(Stephen Langton 1150(?)-1228 7월 9일) 켄터베리 대주교입니다. 신약성경의 절수는 로베르 1세 에스띠엔느(Robert I Estienne 1503-1559)가 나누었습니다. 1551년에 그가 파리에서 제네바로 종교적 망명을 가면서 나귀 위에서 성경 절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구약성경은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 때에 낭독하기 위하여 이미 절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랭톤 대주교가 장만 나누었고, 신약성경은 에스띠엔드가 절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기에 아주 편리하게 되었지요. 이 이야기를 왜하는가 하면, 11장 1,2절이 원래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10장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 다음에 곧

바로 연결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장절에 너무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전체적인 문맥과 문리가 흘러가는 것을 잘 따라야 합니다. 10:11에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고 하신 후에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 곧 자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그 자로 재어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연구를 자세히 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마당은 재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흔 두 달 동안 이방인에게 줄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짓밟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전과 제단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요한에게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연구해야 합니다. 사실 10장에 퍼 놓인 작은 책을 먹는 것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성전, 더 일찍 사용한 말로는 성소지요. 성소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는 말과 관련하여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지요. 그래서 밀러가 이것을 연구하여 1844년이라는 연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한 것은 연대는 맞았지만 성소정결이라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몰랐지요. 이제 다시 성소에 대하여 연구하여서 성소정결이 무엇을 뜻하는지 바르게 깨닫고 다시 예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5. 예,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는 내용은 성소문제와 관련이 있군요. 성소, 또는 성전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다시 예언할 수도 없겠습니다.(당연하지요.) 그래서 성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당시 밀러의 예언 연대 해석에 대하여 아주 면밀하게 다각도로 검증을 했는데 그 연대 계산에는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성소가 정결하여진다고 한 그 내용을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 잘 못된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성소정결이 무엇을 뜻하는지 바르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성소정결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곧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재어보는 것이었지요.

이 장면은 에스겔서의 예언된 장면과 흡사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 중에 에스겔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면서 장대 자를 줍니다. 에스겔 40:1~48:35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측량하는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과 같습니다. 40:3~43:12에는 성전을 측량하게 하였고, 43:13~17에는 제단을 측량하게 하였고, 44:1~48:35에는 사람을 측량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측량하게 한 것은 성전 재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과 사람을 측량하라고 하셨을 때 이 세상에는 이미 성전이 로마군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측량하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일 될 수 없지요. 더구나 그것은 말세가 되었을 때 다니엘서를 연구한 결과로 배에서는 쓰게 된 경험 후에 사건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에 있는 성전일 수 없습니다.

6. 예, 목사님, 저도 그 점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미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답: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성전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면 어디에 있는 성전에 대한 것일까요?(글쎄요? 하늘에 성전입니까.) 예, 하늘성전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알려고 하면 성경에서 하늘성전에 대한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

세히 기록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이지요. 그래서 성소정결이 예수께서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한 배에서 쓰게 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 중에 그 연대 해석을 버리지 않고 오직 성소정결이 무엇인지 알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남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소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계시해줍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는 말씀은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늘성소에 대한 연구를 하라는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7. 목사님, 그것은 더욱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늘성소를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뜻이지요?

답: 당연히 하늘에 있는 건물 성소를 측량하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성소의 의미를 다시 연구하라는 뜻이지요. 특히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진다는 뜻이 무엇인지 연구하라는 지시이지요. 왜냐하면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진다는 다니엘 8:13,14의 말씀을 2300년 끝, 즉 1844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석했는데, 연대 해석은 정확하지만 성소정결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렇다면 성소정결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제일 우선 연구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기 위하여서는 이 세상에 주신 성소제도와 성소봉사제도를 살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주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형으로 주신 것을 잘 연구하여 원형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성소를 직접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주신 모형 성소와 성소봉사에 대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8. 그렇게 연구하여 2300주야 끝에 있는 성소정결이 무슨 사건인지 분명히 깨달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시록을 연구하고 있는 것도 그것을 깨달은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만일 그때 성소정결 문제를 깨닫지 못했다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것과 같이 연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세대주의 학자들이나, 기타 미래주의 해석자들과 같은 해석으로 계시록을 공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에 굳게 서서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이 지시한 방법대로 연구하게 된 것이 다 우리의 선배들이 성소문제를 바르게 연구한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9. 성소문제를 올바르게 깨달은 내용을 말씀하십시오.

답: 성소문제를 자세히 이야기하다가 계시록 공부하는 본론에서 성소문제가 본론이 되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러나 애청자들이나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성소는 구조와 봉사가 있습니다. 구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지요. 뜰, 성소 첫째 칸, 그냥 성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휘장을 치고 둘째 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휘장 뒤쪽 칸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희생의 짐승을 잡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

니다. 성소 안에는 북쪽에 떡 상과 맞은편인 남쪽에 일곱 금 등대와 그리고 휘장 앞 중앙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휘장 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는 언약궤를 덮는 그룹이 돌이 있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 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제사장들이 봉사하는데, 매일의 봉사가 있고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매년 봉사가 있습니다. 매일 봉사는 뜰과 성소에서 하고 매년 봉사는 오직 대제사장이 일 년에 정해진 날 하루 곧 속죄일에만 봉사합니다. 우리가 구조물의 복음적 의미를 말할 수 있지만 일일이 말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성소문제가 본론이 될 것이기 때문에 봉사에 대한 것만 말하겠습니다. 일 년에 속죄일에 한 번 하는 봉사를 성소정결봉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일은 정해져 있는데, 유대 종교력 7월(티스리월) 10일입니다. 같은 달 1일은 나팔절입니다. 이 날에 나팔을 불어서 속죄일이 가깝다는 것을 알립니다. 속죄일에는 일 년간 회개하고 자복하여 속죄제를 드린 허물들을 완전히 기록에서 없애버리는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혹시라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7월 9일까지 살핍니다. 이 9 일간을 “야밈 노라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괴로운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간 동안 혹시라도 이웃과 타인들에게 잘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허물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간의 모든 허물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선언을 기다립니다. 대제사장이 이 일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봉사가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죄에서 완전히 정결하다는 선포를 듣게 됩니다. 기쁜 날이지요.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레16:30]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말씀에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기쁜 날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런 성소, 성전봉사는 하늘성소봉사의 모형입니다. 하늘성소에서도 이와 같은 봉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하늘성소봉사에서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함을 받는 것이 진짜이지요. 그래서 성소문제를 잘 연구해서 성소정결이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지구를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고 하늘성소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지성소봉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10. 예, 그렇습니까. 하늘에도 성전 건물이 있어서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답: 성경에는 하늘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9:11]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온전한 장막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히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늘에 건물 성전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또 계2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21:22]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도 한 번 봅시다.

[렘17:12,13]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13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흠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성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계21:22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소자체이신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는 기능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속죄하시는 방법을 구상화하여 설계하고 만들게 하신 것이 구조물로서의 성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 자체가 이 일을 수행하는 자리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이라고 했다가 그것이 하늘 자체라는 것을 지적하여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고 설명합니다.

[히9:24]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봉사하시는 것을 세상에 주신 성소봉사를 통하여 가르쳐주신 사실을 적용하여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하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참 하늘이라고 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성소를 건물 모양으로 보여주신 것은 계시적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성소이시고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자체가 성전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를 즐겨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시86:5) 그분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구조물로 형상화하여 보여주신 것이 건물성소이지만 그것은 속죄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한 시청각교재로 만들어 주신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1. 그런 말씀은 하늘에 실제로 건물은 없다. 그러나 속죄하는 봉사를 사람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하여 시청각교재로 이런 구조를 가진 성전건물을 짓게 하여 하나님의 속죄하시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뜻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시 중에 보여준 건물은 계시적 형상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세상에 만들게 하신 성소와 그 봉사를 통하여 하늘의 봉사를 알게 하시니까 구조물의 형태로 설명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계시적 형상으로 보여주신 하늘성소나 이 세상에 짓게 하신 성

소나 성전이나 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시청각교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르게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12. 예, 목사님,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니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축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즉 성소문제를 간단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 없이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성소봉사를 통하여 속죄하시는 은혜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성소정결봉사를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복음을 밝히 알고 바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